

적막한 고령마을 옷나무로 생기 찾는다

표 속의 전남 <5>

순천 문성 옷나무 숲(문성마을회)

옷나무 된장사업 성공에 휴경지마다 나무 심어
고추장·웃술 등 대상 확대...사계절 체험장 조성

순천 문성마을은 호남고속도로 석곡나들목에서 주암나들목으로 가는 길 바로 옆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다. 25가구 39명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30명이 채 안 된다.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것은 다른 농촌마을과 같다. 이 작은 마을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2012년 순천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 이후 옷나무를 이용한 된장을 만드는 공동체 소득사업에 나서 매주숙성실을 만들고, 2015년 글로벌 공동체 한마당 우수공동체차량대회 수상, 전남 행복마을 콘테스트 소득체험분야 최우수상 등 상복이 터지고 있다.

특산물인 콩과 옷나무를 융합해 ‘옷나무 숙성 된장’을 만들어내고, 건강을 생각하는 도시민들을 상대로 회원 모집에 성공하면서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7명으로 시작했는데 4년만에 2360명으로 불었다. 6가구가 가구당 650만원을 출자해 시작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점차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25가구로 늘었다. 아미산 자락에 자리한 문성마을은 고려말 서당이 건립돼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부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천태암(1195년 건립), 옥채굴·금성개골 계곡, 철철바우, 서당터, 아미산 등산로 등의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옷된장체험장, 밤체험장, 산림체험장, 달맞이공원, 야생화정원 등 아기가 기한 시설들이 잘 녹아져있다. 좋은 자원과 그것을 엮어내는 사실을 찾는 도시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결국 옷나무가 부족해지자 문성마을회는 전남도의 가고 싶은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고령화로 휴경지가 곳곳에 있어 식재장소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옷나무는 3년산부터 쓸 수 있으며, 순은 나물로, 목대는 잘라서 된장에 넣는다. 4년 이후에는 진액을 낼 수 있고, 7년차부터는 수액 생산도 가능하다. 옷나무를 넣은 된장은 100일 이상 숙성해야 독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독대도 중요한 자산이다. 향후 고추장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의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미 방문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조리실에는 와송, 아로니아, 옷나무 등으로 술을 담가 판매하고 있다. 또 봄에는 매주 옷된장 체험과 산나물 체험, 여름에는 딸기체험과 감자·옥수수 수확체험, 가을에는 농촌살기 체험과 달맞이 체험, 매뚜기·미꾸라지 체험, 겨울에는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

올해 심은 2년산 옷나무 2만 그루와 소나무 400그루, 마을 곳곳에 뿌린 레드 클로버 씨앗 100kg은 마을 주민 100명을 달성하겠다는 희망도 담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옷나무숲 정보

주소:순천시 주암면 고산리 산 44-21 외 16필지

면적:75,000㎡

내역:나무 2만그루, 소나무 400그루, 오색클로버 씨앗 100kg

목적:주민 소득 향상



지난해 10월까지 마을 곳곳에 심은 2년산 옷나무. 3년차부터 옷나무는 사용이 가능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성마을에 저보다 젊은 주민 생겨야죠”

이호성 농업법인 서당골(주) 사무장

섬락하는 문성마을, 즉 우리말로 서당골에 활기를 불어넣은 이는 이호성(55·사진) 농업법인 서당골(주) 사무장이다. 순천 송광이 고향인 그는 지난 2008년 서울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다 몸이 아파 귀향을 생각했다. 하지만 고향은 주암면이 생기면서 수몰돼 오갈 곳이 없었다. 그 때 호남고속도로 옆에 자리한 마을이 눈에 들어와 2년만 쉬었다 가려했다가 정착했다. 이 사무장은 3년 후인 2011년부터 몸이

건강해지자 마을주민들을 돕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해 옷나무 숙성 된장을 만들어냈다. 주민들을 설득해 콩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자신들의 지인에게 제품을 보내 평가를 받았다.

“지인들에게 보내보니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생겨 주민들을 설득하고 본격적인 생산체계를 갖췄습니다. 이제는 다른 마을에도 농업법인 설립을 도와줄 정도가 됐습니다.”



그는 주변 마을 4곳의 농업법인 운영을 맡고 있으며, 향후 이들 마을을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2015년 10월 완

공된 체험장 인기도 높아 장독대에는 서늘, 경기 등의 주소를 가진 외국인들이 소 유한 장독들로 가득하다.

“장독이 이렇게 보이지만 100만원이 넘는 겁니다. 옷나무 숙성 된장이 그만큼

가격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낙연 전남지사께서도 이곳에 오셔서 농촌 발전 모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사무장은 계획한 사업들이 끝나는 오는 2018년부터 주민 소득이 급속하게 상승하기 시작해 7~8년 후면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심각한 고령화다. 주민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자칫하면 마을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지경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100명의 주민이 사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마을이 보다 활기가 넘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주민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삭막했던 광양 진입로 장미로 물들다

광양 하광 배수펌프장 하천 숲(사단법인 광양시 새마을회)

광양동 공유수면에 상록수·낙엽수 등 심어

광양시 광영동은 광양제철소와 가장 인접해 있어 과거 크게 번영했었다. 하지만 중마동이 개발되고, 곳곳에 택지가 들어 서면서 광영동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비율도 가장 높은 곳으로 변모했다. 쇠락한 광영동을 되살리기 위해 광양시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영동의 하광배수펌프장 옆은 수어천과 남해가 만나는 지점으로, 좋은 경관을 가졌다. 하지만 배수펌프장이라는 시설과 시멘트 벽이 가로막고 삭막한 궁터가 시선을 피하게 만들었다. 새마을회 회원들이 이곳을 주목한 것도 너무 아까운 공간이었



기 때문이다. 광양제철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언제나 봄비는 강변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광양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다.

우양근(49·사진) 광양시 새마을회 사무국장은 “회원들이 숲속의 전남에 공모해보자고 자꾸 권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쇠락하는 광영동에 무엇인가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주민들도 운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보자고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000㎡ 면적의 공유수면에 상록수와 낙

엽수를 적절히 섞어 심었다. 또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장미를 선사하고 싶었다.

광양시의 송재식(55) 산림계장, 정호연(여·35) 담당 등도 이 같은 새마을회의 계획에 적극 동의했다.

정호연 담당은 “비록 시멘트 벽이 가로막고 있지만, 여기에 숲과 장미꽃밭이 생기면 산책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고 운전자들도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하천숲 정보

주소:광양시 광영동 746번지 인접 공유수면

면적:3,000㎡

내역:배롱나무, 먼나무, 동백나무 등 34그루, 화양목 2,700그루, 장미 1만 5,000본

목적:경관 향상



시멘트 벽 너머로 보이는 광양 수어천과 남해바다가 만나는 경관.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성훈한의원

포바즈 네트워크 광주점

www.epocrates.co.kr

두암타운사거리

☎(062)263-8275

안면비대칭 **턱관절장애**

원다리교정 **체형교정**

Yellow ID TALK

@ 포바즈광주점

친구추가 하세요.

NAVER 김성훈한의원 검색

심의필 160315-증-30749